불성 갖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할 뿐

☞ 17면에서 계속

이 나중에는 시대가 변하는 대로 아무래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랬다고 해서 자식도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오히려 폐단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놓은 신들이 부모 때처럼 모셔주지 않으니 폐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귀신이라면 모두가 귀신이고, 내가 선신이라면 모두가 선신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어놓고, 귀신을 만들어 놓고, 귀신에 말려 가지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러다가 시신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사람들도 봤고, 자손들이 병이 들어서 대대로 애를 쓰는 사람도 봤고, 자식대에서 망하더니 5·6대가 그렇게 되는 집안도 봤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딸이 그렇게 되고, 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연방, 아들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무서운 일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략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실 겁니다. 모르고 저지른 일이지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성으로 유전되는 이치들이 너무나 무섭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런 걸 감안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찰나에 한 물건이 나왔다가 찰나에 한 물건을 쓰고, 이 물건이 떨어지면 그 물건도 떨어질 것을 무엇 때문에 착을 두고 진정한 사랑과 아픔을 서로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아픔을 다 녹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화롭고 춘하추동 꽃의 향기처럼, 그래서 만백화라고 하죠, 춘하추동 만백화. 마음들이 이쯤 돼야 모두 구린내 나는 것도 향기로써 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이 네 방귀, 내 방귀, 귀신 방귀가 온 누리에 두루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귀신이고 마음에 따라서 선신입니다.

그러니 울고 웃는 자비의 한생각이 방울이라면 한 방울의 피를 서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주고받는 사이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서 마음으로써 마음을 녹이고, 연관성 있는 인과에 끄달리지 않게 녹이는 작업을 쉴 사이 없이 해야만 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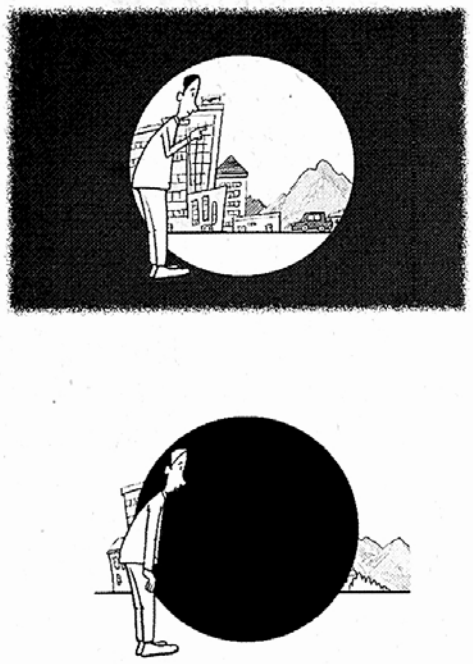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몸 속 생명체의 관리인 맡겨 놓으면 한마음으로 돌아가

하고 남의 큰 나무만 쳐다보는 격이나 마찬가집니다. 저 나무 뿌리를 떱은 흙을 무명(無明)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무명이 떱인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무들은 몰라요, 자기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똑바로 알면 하나도 말을 붙일 것조차 없는 것인데 못 믿으니까 괜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오히려 산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내가 자고 먹고 똥누고 잠자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책을 보든 뭘 한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것도 다, 나를 형성시켜서 만든 그 장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화엄경에도 있듯이,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그 차원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자기 싹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정말로 믿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게을리 하고 하는 것조차도 그놈이 다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거름, 과거 · 미래 · 현재가 둘이 아닌데,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도 둘이 아니고 안과 밖을 다 조복 받았는데 뭐가 있으랴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삼재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입력해 놓은 대로 나오지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고, 삼재도 붙지 않고, 어디 산길을 걸어갈 때도 나무들이나 돌들이나 흙들이 전부 자기 편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받들어 주고, 다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게 되는 거죠.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몰라서 있는 거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팔자 운명이라고 이름짓지 않는다면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과거고, 조금전도 과거고, 1초전도 과거니까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실이 한데 뭉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알아야 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이나 삼재는 생각으로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먹지 못하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삶도 가난해 지는 거죠. 혼자 무거운 거를 들려니 들어지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과 밖을 조복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라는 말이거든요. 바깥의 것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깨우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장자를 딱 쥐고서 나가는 데는 항상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사대에서 통신이 되면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심성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삼재니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걸려서 헤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꼭 해야만 된다 이런 건 없죠.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뜻으로 알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자꾸 군더더기가 되고 보태져서, 마음이 때가 끼고 오히려 더 못살게 되는구나. 이 때를 다 벗겨야 되겠다. 다 벗어버려야 된다.' 하고 알아야 할겁니다.

그거를 몽땅 놓는다면 하늘을 보고 허허 웃어도 그냥 공법이고 평등하고 여여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사는 게 그렇게 여여하다는 걸 아신다면 모두 갖추어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갖추어져 있는 거를 알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도 손색이 없죠. 이렇게 흐뭇하고 묘하고 자기의 보배주가, 구슬이 각자 자기한테 다 있으니 정말 마음의 보배를 밝혀서 다들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삼재 · 팔자 · 운명 마음먹기 탓

열심히 하려면 더 힘들어

문 저는 관이 조금 잘되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기가 오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고 수행이 되지 못한 탓인지 열심히 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이 모든 마음을 다 쉴 수 있습니까?

답 내가 예전에 공부하던 생각을 해 보면 말입니다. 이 내 마음 중심에다 관(觀)하면 더 한다 덜 한다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무조건 더 오든지 덜 오든지 그걸 상관을 안했다구요. 그건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여기서 다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이 또 그렇구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놓고도 이게 더 하느냐 덜 하느냐 하고 그렇게 지켜보면 더 요상하게 자기를 흔들어 놓거든요. 말하자면 그 마음까지 떨어트리려고 자꾸 공부 재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되는 대로 자꾸 놓으면 말수가 좀 없어지면서, 불안한 게 없어지면서 그 마음이 자꾸 가라앉죠. 근데 자꾸 고걸 어떻게 됐나 지켜본단 말입니다, 관해놓고는. 그렇게 지켜보는 건 못 믿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보니깐 외려 더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그 뒷마무릴 해야 하죠. 많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 족족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 나무들이 뿌리가 있어서 자기 나무가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 뿌리는 등한시라는 것을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 양면을 한손에 쥐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재에 대해서…

문 모든 게 공해서 업조차도 붙을 게 없다는 스님의 말씀대로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맡기고 하면서도 이사할 땐 꼭 스님들께 편지로라도 여쭙고 합니다. 완전히 못 맡겼든지 아니면 조금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맡기는 데 도움이 될까하고 여쭙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앉을 삼재인데 이제껏 걸리지 않고 살았는데 올해 이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집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구한 집도 정말 맘에 들지 않아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것이 불안하기조차 합니다. 앉을 삼재가 이사 운과 관계가 있는지요? 미혹한 질문인지 알면서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이 놓이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부탁 올립니다.

답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 거,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 또는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세균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 Box × 60포 : 15만원 ■ 2 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모든 대체요법가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일만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레이키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우주생명 에너지 요법가(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레이키에는 어퍼런트 라는 비법이 있어서 여러해씩 기공수련을 해야 하는 기공과는 달리 즉각 누구나 우주 생명에너지 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인류의 가장 과학성 높은 氣문화 체계로 자리잡혀 있는 레이키는 모든 대체요법가(침뜸 전문가, 지압사, 앗사지사, 피부관리사, 아로마 요법가, 활법사, 골격조정가, 발반사 요법가, 단식원 운영자, 기공 치료가, 생식 요법가, 심령 상담가, 최면요법가 등)가 갖춰야할 기본 능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대체 요법가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레이키입니다.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체계세운 방법이 미국, 일본 등의 레이키 관계자들에 의해 발전된 氣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는 건강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 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 입니다.
3. 저(박희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20년간 건강분야,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6년 부터 일본등에서 레이키를 만나 여러 갈래의 레이키를 폭 넓게 배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선생)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고 1997년 부터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대표 박희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생식마을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장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봉담 자혜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효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병원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 체질개선
2. 건강증진
3. 피로회복
4. 완전한 다이어트
5. 완전식사
6. 식습관 개선
(생식요법)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른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 좋습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완료 현미, 율주콩, 적두, 현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참, 양곤, 우엉, 신선초, 계설, 현미리, 감설, 봉입,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효락백기산 등 3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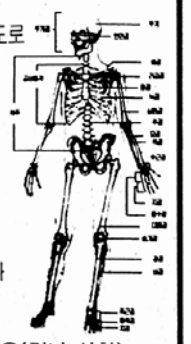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